

5월과 푸르름

윤민용 / 한국화학장치(주) 상무

5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 하던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의 빛깔이 나날이 푸르게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고는 과연 이 5월은 신록의 계절이요, 계절의 여왕이란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누군가 5월의 산을 보고 봄단풍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나무마다 잎이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봄의 산 빛깔은 아름답다. 그야말로 초록 빛깔이 모두 모인 초록의 향연장 같다. 갓 피어난 연두 빛의 잎새가 고운가하면, 또 벌써 잎이 무성해진 나무는 그 잎이 짙어지기 시작해 보는 이로 하여금 한여름의 녹음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잠시나마 자연과 더불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푸르게 단장한 자연 속에서 그 푸르름을 흠뻑 몸에 받으며 하루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주말이면 도시 근교의 산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특히 요즘 처럼 날씨가 좋은 때에는 엄청난 인파가 산으로 모여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휴일이 찾아오기가 무섭게 너도 나도 어깨에 배낭을 짊어지고 다투어 산에 오른다.

산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 잡힌 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푸른 자연이 그리워 산을 찾는다. 사람들이 산을 찾아 나서는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듯이 산에 오르는 이유도 각양각색일테지만 아마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공통된 것이 아닐까 싶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구경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람들은 산을 찾는다. 산세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 떠난다. 빼어난 경치를 바라보면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하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산을 찾는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산을 찾는 또 한 가지 이유다.

자동차 매연과 먼지 속에서 생활하다가 숲 속에서 투명하고 신선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나면 기분이 여간 상쾌해 지는게 아니다. 더우기 최근에는 숲 속의 공기에 우리 신체의 건강을 돕는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숲 속에 있는 많은 수목과 수풀들이 방출하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신체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성분이 우리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산림욕이라고 하여, 숲 속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며 마심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이 산림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산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산길을 걸을 때 발에 와 닿는 그 부드럽고 폭신한 흙의 감촉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을 걸을 때와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다. 마치 스폰지를 한 겹 깔아 놓고 그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다. 우리가 산을 찾는 이유가 어디 이 뿐이



졌는가?

숲 속의 고요함 속에서 듣는 새 소리 그리고 물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산이 그리워 우리들은 산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가슴 밑바닥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있기에 우리는 산을 찾는다. 바로 다름아닌 자연의 푸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식물은 생산자고 우리 인간은 소비자이며, 식물이 생산자인 것은 엽록소 때문이라는 기초적인 지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 대자연의 푸른 빛깔을 동경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푸름은 안정, 평화, 관용을 뜻한다. 그리고 산림의 푸른 빛은 가장 훌륭한 푸름이다. 우리들 눈에 가장 피로가 덜 느껴지는 색깔이 초록색이다. 녹색의 나뭇잎은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

시골의 어린이들이 도시 어린이들 보다 시력이 좋은 것도 이러한 자연의 푸른 빛깔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자연의 푸름으로

부터 계속 단절된 상태에서 이어져갈 때 아마 본능적으로 그 푸름을 찾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손 바닥만한 마당이라도 있으면 화초를 심고, 또 집안에 화분을 갖다 놓고 하는게 아닐까?

요즘은 아파트에도 그런 인테리어니 실내 원예니 해서 집안에 푸름을 가득 채워 놓는게 유행인가 보다.

주말이면 산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나 집안을 푸름으로 장식하려는 마음이나 모두 자연의 푸른 빛을 그리워 하는 한결 같은 마음이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만드는 인공적인 색깔이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때, 자연의 빛깔을 잊지않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살아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다. 이 5월에는 우리도 두 신록의 푸른빛이 지닌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